

# ‘AG 히트상품’ 황의조·황인범 새 동력 낙점

GK 진용 유지·수비 김문한 깜짝발탁  
은퇴 발언 기성용·이재성 활용 관심  
베테랑 윤석영·남태희·지동원 승선

코스타리카(7일·고양)~칠레(11일·수원)로 이어질 9월 A매치 시리즈는 축구국가대표팀 신임 사령탑 파울루 벤투(49·포르투갈) 감독의 공식 데뷔무대다. 2018러시아 월드컵을 절반의 성공으로 마친 한국축구가 2022카타르월드컵으로 향하는 새로운 4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축구팬들의 관심이 높다.

신임 코칭스태프의 집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를 둘러보고 K리그1 두 경기를 관전하면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한 벤투 감독은 27일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A매치 2연전에 출격할 태극전사 24명을 공개했다. 그는 “러시아 월드컵 출전선수를 기본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젊은피를 수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표팀은 다음달 3일 파주NFC에서 소집훈련을 시작한다.

●안정적인 개혁  
예상대로였다. 큰 폭의 변화는 없었다. 2018카타르-팔렘방아시아게임(AG)에서 번뜩이는 활약을 펼친 일부가 승선했을 뿐, 대부분이 월드컵을 경험한 자원들이었다. 당장의 개혁이 아닌, 안정적인 교체를 가져가겠다는 코칭스태프의 의지로 풀이된다. 러시아월드컵 최종엔트리 23명 가운데



벤투 감독

17명이 벤투호 1기에 승선했다. 급격한 변화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남부3에서 월드컵 주전 수문장으로 도약한 조현우(27·대구FC)를 필두로 한 골키퍼 진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포백을 기반으로 한 수비라인도 AG에서 좋은 인상을 심어준 김문환(23·부산 아이파크)의 깜짝 발탁을 제외하면 월드컵 멤버들로 뼈대를 구축해 안정에 초점을 뒀다. 공격직과 미드필드진에는 AG에서 골 폭풍을 몰아치며 무력시위를 이어간 황의조(26·감바 오사카)와 AG를 통해 실력을 입

증한 황인범(22·아산 무궁화)을 처음 합류시켜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다.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모로코 원정 평가전 이후 11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되찾았다.

●중원의 변화  
장현수(27·FC도쿄)는 멀티 플레이어의 전형이다. 중앙수비가 주 포지션이지만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 러시아 여정은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지만 기량만큼은 대체가 불가하다. 일단 벤투 감독은 장현수의 빌드-업 능력을 주목해 중원 자원으로써 검증을 시작할 전망이다. 여기에 월드컵 이전부터 국가대표 은퇴를 염두에 둔 발언을 했고 아직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캡틴’ 기성용(29·뉴캐슬 유나이티드)의 팀 내 비중 및 역할 정리, 독일 분데스리가2(부 리그) 진출 이후 꾸준히 맹위를 떨치는 이재성(26·홀슈타인 킬)의 활용에 시선이 집중된다.

●베테랑 컴백  
한동안 대표팀과 떨어져 있던 멤버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왼쪽 풀백 윤석영(28·FC서울)과 다용도 공격콤비 남태희(27·알 두하일), 지동원(27·아우크스부르크)이 카타르월드컵을 바라보고 있다. 2012런던올림픽 동메달 신화를 일군 주역들이지만 페이스 난조와 소속 팀 문제 등이 겹쳐 본의 아니게 잠시 태극마크와 멀어져 있었다.

포지션	이름(나이)	소속팀
GK(3명)	조현우(27)	대구FC
	김승규(28)	비셀 고베(일본)
	김진현(31)	세레소 오사카(일본)
DF(8명)	김민재(22)	전북 현대
	김영권(28)	광저우 에버그란데(중국)
	정승현(24)	사간 도스(일본)
	윤영선(30)	성남FC
	이용(32)	전북 현대
	홍철(28)	상주 상무
	윤석영(28)	FC서울
MF(7명)	김문환(23)	부산 아이파크
	기성용(29)	뉴캐슬 유나이티드(잉글랜드)
	이재성(26)	홀슈타인 킬(독일)
	장현수(27)	FC도쿄(일본)
	정우영(29)	알 사드(카타르)
FW(6명)	주세종(28)	아산 무궁화
	남태희(27)	알 두하일(카타르)
	황인범(22)	아산 무궁화
	손흥민(26)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
	황희찬(22)	찰츠부르크(오스트리아)
	이승우(20)	헬라스 베로나(이탈리아)
	문선민(26)	인천 유나이티드
	지동원(27)	아우크스부르크(독일)
	황의조(26)	감바 오사카(일본)

그러나 경험은 무시할 수 없다. 예전 기량을 서서히 회복하고 있고, 많은 A매치 출전으로 쌓인 노하우는 벤투 감독에게 큰 힘이다. 윤석영은 2016년 11월 이후 2년여만의 컴백이고 남태희와 지동원은 지난해 10월 모로코 원정 평가전이 가장 최근 대표팀 합류였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콤팩트 뉴스

### 박성현, 2주 연속 세계랭킹 1위

박성현(25·KEB하나은행)이 2주 연속 여자골프 세계랭킹 선두자리를 지켰다. 박성현은 27일(한국시간) 캐나다 사스캐atoon 주 와스카나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캐나다 여자오픈에서 13언더파 275타를 기록하고 공동 8위에 올랐다. 대회 2년 연속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톱10에 포진하면서 세계랭킹 1위는 2주 연속 지키게 됐다. 이 대회 우승은 21언더파 267타를 작성한 브룩 헨더슨(21·캐나다)이 차지했다. 양희영(29·PNS창호)은 14언더파 274타로 공동 4위에 올랐다.

### 통장 대여 한화 윤호솔, 2개월 자격정지

KBO 상벌위원회는 27일 전자금융거래법(개인 통장 및 체크카드 타인에게 대여)을 위반한 한화 이글스 윤호솔에게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따라 2개월(60일)의 자격정지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윤호솔은 이날자로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및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같은 날 한화는 구단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회봉사 120시간의 추가 자체 징계를 내렸다.

### 9월 토·일 취소경기 월요일에 재편성

‘2018 신한은행 MY CAR KBO’ 9월 경기에 한해 월요일 예비일이 편성됐다. KBO는 9월 10일, 17일, 24일, 10월 1일을 예비일로 지정하고 직전 토요일 또는 일요일 경기가 취소될 경우 리그규정 제5조 [경기 일정 결정 및 변경] 1항에 따라 월요일에 취소된 경기를 재편성하기로 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경기가 취소될 경우에는 10월 2일 이후에 편성된다. 2018카타르-팔렘방아시아게임 휴식기를 갖고 있는 KBO리그는 9월 4일 재개된다.

### 로드FC 9월 16일 ‘사랑나눔 헌혈행사’

로드FC가 9월 16일 ‘사랑나눔 프로젝트’ 여덟 번째 이야기, ‘사랑 나눔 헌혈행사’를 진행한다.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이번 행사에는 로드FC 김대환 대표, 정문홍 전 대표, 박상민 부대표를 비롯해 배우 김보성, 개그맨 윤형빈 등 유명 연예인들이 참석한다. 권아솔, 최무겸, 김수철 등 로드FC 전현직 챔피언들도 함께한다. ‘사랑나눔 프로젝트’는 로드FC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2010년 창립 이후 정문홍 전 대표가 꾸준히 진행해온 프로젝트다. 약 8년간 연탄 나눔 활동, 사랑 나눔 헌혈, 전통시장 활성화와 응원, 영육아원 방문 봉사, 소아암 어린이 돕기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벤투 감독 보좌·리포트 정리...김영민 신임코치의 내조

### 벤투호 1기 공개하기까지

K리그1 수원 스카우트 팀장 출신  
어학 실력에 폭넓은 선수 정보 도움

축구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파울루 벤투(49·포르투갈) 감독은 코스타리카(7일·고양)~칠레(11일·수원)로 이어질

9월 A매치 시리즈에 출전할 태극전사 명단(24명)을 27일 공식 발표했다. 20일 입국한 지 꼭 일주일 만에 공개된 첫 결과물이다.

다소 늦어진 신임 계약으로 인해 시간에 쫓긴 벤투 감독은 거처가 마련될 때까지 머물게 된 경기도 고양시의 한 호텔에서 여러 차례 대표팀 코칭스태프와 미팅을 하며 선수선발 및 정리 작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준 이가 김

영민(45·캐나다명 마이클 김) 신임 코치다. K리그1 수원 삼성 스카우트 팀장으로 재직하던 김 코치는 탁월한 어학 실력을 바탕으로 벤투 감독이 입국한 직후부터 보좌했다. 마침 그는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회(위원장 김판곤) 정보·전략 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해 폭 넓은 최신 선수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

김 코치의 도움을 받아 벤투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는 리포트로 정리된 자료를

검토하고, 직접 관전한 K리그1 두 경기를 복기하면서 명단을 정리했다. 다만 축구협회 추천으로 김 코치와 함께 합류할 최태욱(37) 서울 이랜드FC 코치는 아직 업무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달 말까지는 소속 팀에 머물러야 한다는 후문. 물론 다음달 3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시작할 소집훈련 참여는 문제 없다.

협회 관계자는 “벤투 감독이 2018러시아 월드컵 멤버들에 대한 파악은 면접에 앞서 이미 마친 상태라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다. 주요 유럽파도 알고 있다. K리그는 낯설지만 향후 최대한 많이 현장을 찾는다는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괴물’ 류현진이 27일(한국시간)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와의 홈경기에서 선발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류현진은 5.2이닝 2실점으로 시즌 4승을 수확했다. 타석에서도 2안타를 기록하며 모처럼 ‘이도류’의 면모를 다시 보였다. LA(미 캘리포니아주) | AP뉴시스

## 다저스 타선 깨운 류현진의 2안타

3회 이어 5회 안타...빅이닝 몰고  
SD전 5.2이닝 8K 2실점 시즌 4승

LA 다저스 류현진(31)이 127일 만에 승리를 챙겼다. 투수뿐만 아니라 타자로도 제 몫 이상을 해내며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류현진은 27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2이닝 2실점을 기록했다. 타자로는 9번타자로 나서 멀티히트와 득점을 만들었다.

류현진은 당초 예정된 등판보다 이틀을 앞당겨 선발 마운드에 올라야 했다. 코칭스태프가 또 다른 선발투수 알렉스 우드(27)에게 좀 더 휴식을 주기로 결정하면서 평소 자신감이 있던 샌디에이고전에 등판하게 됐다.

이날 경기 전까지 류현진의 샌디에이고 전 통산 성적은 5승1패, 평균자책점도 2.63으로 좋았다. 2013년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이래 가장 좋은 상대 전적을 기록한 팀이 바로 샌디에이고였다.

기록은 곧바로 경기력으로 나타났다. 류

현진은 과감하게 초구 스트라이크를 넣는 공격적인 투구로 2회까지 승부를 해나갔다. 2회 선두타자 프란시 레이에스에게 솔로홈런을 맞았지만, 잡아낸 삼진이 5개나 될 정도로 안정감을 뽐냈다.

3회부터는 위기관리능력으로 추가 실점을 최소화했다. 류현진이 이날 허용한 안타는 무려 11개. 이 중에는 2루타, 3루타, 홈런 같은 장타도 여럿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6회 2아웃까지 단 2실점으로 버티며 퀄리티스타트에 준하는 맹활약을 펼쳤다.

류현진의 활약이 더욱 큰 주목을 받은 이유는 맹타 덕분이다. 9번타자로 나선 그는 3회와 5회에 안타 한 개씩을 때리며 멀티히트를 작성시켰다. 5회 안타는 답답한 팀 타선에 몰고올 뜨는 역할을 해 팀의 ‘빅이닝’을 이끌었다.

류현진은 승리투수 요건을 갖춘 뒤 6회에도 마운드에 올랐으나 이날 마무리 짓지는 못했다. 2사 이후 상대 타자들에게 연속안타를 내줘 공을 다음투수 페드로 바에즈에게 넘겼다. 팀 동료들은 다행히 이번에는 류현진의 승리를 지켜줬다. 타선은 6회 추가 2득점했고, 볼펜진은 리드를 지켜 최종 7-3의 승리를 거뒀다. 류현진의 시즌 4승이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